민족사상 전개과정 총괄한 한국학 大役事

정신문화연구원 펴냄「韓國思想史大系」

우리 민족의 정신적 원형과 사상적 전통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한국사상사대계」(전6권, 정신문화연구원)가 10년여의 작업 끝에 비로소 완간되었다. 이로써 상고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각 시대마다의 문화와 사고의 특징, 변별성과 동질성을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민족의 사상적 전통과 정체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기획물은 지난 8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우리의 정신문화에 대한 총체적이고 긍정적인 개관을 해야 할 필요성"에서 모든 분과학문을 망라하여 우리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밝히는 적절한 주제를 정하는 등 기획에만 꼬박 1년여가 걸린 야심에 찬 시작을 보였다. 철학·종교·언어·문화·예술·역사·과학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자 80여명이 참가, 총 92편의 논문을 싣고 있는데, 90년에 1권을, 91년에는 2, 3, 4권을, 지난해에 5권을, 마지막 책인 6권을 최근 출간해냄으로써 大役事를 마무리지었다.

「한국사상사대계」는 우리 사상의 발달과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다소 미흡한 '방대한 논문모음'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제간의 공동연구의 산물이란 점에서, 거시적 안목에서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조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80여명 학자 참가 92편의 논문으로 체계화

「한국사상사대계」의 구성은 '서설 및 상고대편'(1권) '고대편'(2권) '중세편'(3권) '근세전기편'(4권) '근세후기편'(5권) '근대편'(6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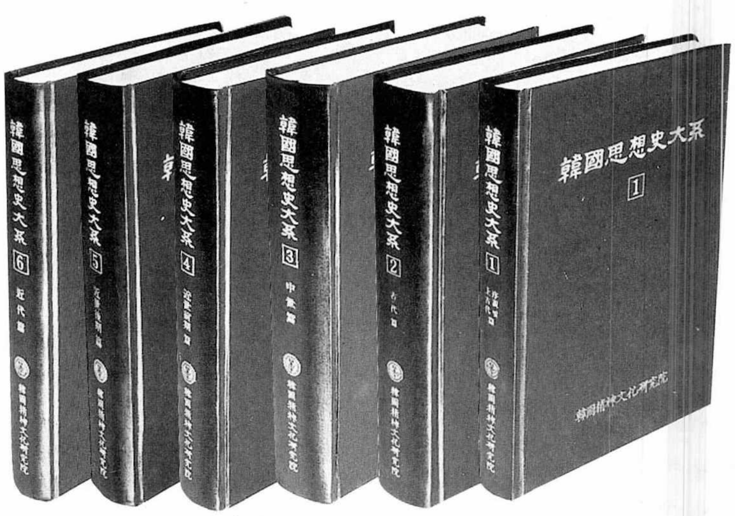
먼저, 1권 '서설 및 상고대편'은 한국사상사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의 정립과 구체적인 방법론의 지표를 개관한 '서설편'에서 한국사상사의 제측면들—역사적·종교적·문학적·음악적·미술적 측면 등—에 대한 9편의 논문을 싣고 있으며, 이어지는 '상고대편'에서는 '한국사의 출발' '한민족의 언어와 신화' '한국예술의 원류'로 구분된 주제 아래「한국사의 여명기, 그 역사의 전개와 문화형성」(김정학, 전 정문연 객원),「한국신화의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김열규, 인제대 국문학) 등 모두 7편의 논문이 들어 있다. 첫째권은 우리 민족의 사상적 원형을 만든 상고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점검했는데, 그동안 일반역사 부문에서 소홀히해온 우리민족의 원시생활문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2권 '고대편'은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의 불교·도교·유교 등 사상의 역사와, 그 종교사상들과 일상생활의 연관성, 그리고 향가와 한문학의 발전 및 예술분야의 성과 등을 21편의 논문에 나눠 싣고 있다.

주요논문의 제목은「고구려의 역사와 사상」(노태돈, 서울대 한국사)「백제의 〃」(강인구, 정문연 역사)「신라의 〃」(김상현,동국대 사학과)「가야의 〃」(김정학)「발해의 〃」(김사진, 서울대 한국사)「고대사상의 특성」(신동하, 동덕여대 한국사)「종교교섭사의 현상과 정신」(유승국, 전 정문연 원장)「도교신앙의 전개양상과 생활세계」(송한룡, 성균관대 사학과)「원효사상의 독창적 특성」(이기영, 전 동국대 불교철학)「삼국설화의 문학적 해석」(조동일, 서울대 국문과)「한문학의 도입과 정착」(최신호, 성심여대 국문과)「삼국시대 미술의 정신세계」(진홍섭, 전 정문연 객원)「황금기 불교문화와 이상적 사실주의 미술」(문명대, 동국대 불교미술)「고구려와 백제음악의국제성」(이혜구, 정문연 객원)등이다.

3권 '중세편'은 고려시대의 역사와 사회 및 그 시대를 지배했던 사상, 고려불교에 나타난 철학과 종교, 그리고 고려의 예술과 과학사상에 관한 15편의 논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세 고려시대의 집필자로는 '역사와 사상' 부문에 허흥식(경북대, 사학) 정구복(정문연, 한국학) 김사진, '정신문화의 일반적 전개' 부문에 이은봉(덕성여대, 종교학) 정영근(서울산업대, 사학) 김충렬(고려대, 철학), '불교신앙' 부문에 김지견(정문연, 불교학) 한기두(원광대, 한국불교학) 길희성(서강대, 한국종교사), '어문학과 생활세계' 부문에 남풍현(단국대, 국문학) 김건곤(정문연 연구원), '예술과 과학정신' 부문에 주홍섭(전 정문연 객원) 이혜구 박성래(외국어대 과학사) 교수 등이 참가했다. 주요논문의 목록은「토속신앙과 풍수도참사상의 발달」「고려 유교정신의 맥락」「교종의 사상적 전통」「고려 선종의 사상적 전통」「고려 한문학의 정신세계」「고려시대의 과학문화」등이다.



10년여의 작업끝에 최근 완간된「한국사상사대계」전6권.

'근세전기'를 조명한 4권과, '근세후기'를 대상으로 한 5권은 우리 역사에서 사상적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다. 특히 5권은 조선시대 후기로부터 근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시기에 나타났던 한국사상의 특징과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양상을 살피고 있다. 유교의 변천과 실학의 등장, 한문학의 변모와 국어문학의 성장, 미술과 음악의 변화추이와 전통과학과 현대과학의 관계 등을 규명한 논문들이다.

「조선전기의 사회와 사상」(김해영, 경상대 사학과)「조선전기의 민간신앙과 도교적 성향」(조홍유, 한양대 사학)「성리학적 가치관의 전통」(금장태, 서울대 한국학)「조선전기 회화의 사상적 기반」(홍선표, 홍익대 박물관) (이상 4권),「조선후기의 사회와 사상」(김용덕, 중앙대 명예교수)「조선후기의 역사의식」(정구복, 정문연 역사학)「민간신앙과 도교적 경향」(김태곤, 경희대 민속학)「서학의 도입과 전개」(이원순, 전 서울대 한국학)「민족종교들의 대두」(장병길, 전 서울대 종교학)「유학파들의 사상적 갈등과 변천」(허남진, 서울대 철학과)「실학파들의 사상적 계보와 전개」(김정신, 정문연 철학)「국어에 대한 관심과 국문사용의 확대」(이승욱, 서강대 국어사)「한문학의 변모와 반성」(정대정, 세종대 국문과)「조선후기 정악과 민속악의 발달양상」(황준연, 서울대 국악이론)「전통과학과 신과학문물의 유입」(김용운, 한양대 수학)(이상 5권) 등이다.

6권 '근대편'은 일제하의 민족운동을 비롯 근대의 사상적 전개양상에 관계되는 유학사상과 불교개혁운동, 기독교의 전래와 확산, 그리고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예술 제장르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일제시대 역사학의 사조와 역사의식」「한말, 일제하 한국종교연구의 전개」「근대 한국음악의 전개」등 총11편의 논문을 권희영(정문연, 한국사) 최근덕(성균관대 유학) 민경배(세종대, 사학) 김민수(전 고려대 국어학) 노동은(목원대, 음악이론) 교수 등이 집필했다.

한국사상의 흐름 정리 큰의의

이상과 같은 내용 구성의「한국사상사대계」는 우리사상의 발달과 전개과정의 체계를 온전히 보여주는 데는 미흡한 "방대한 논문모음"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개별연구에서 벗어나 한국사상사에 대한 학제간의 공동연구작업 ▲소장학자들의 학설과 방법론까지도 수용하는 한편 최근의 연구성과도 반영, 거시적 안목에서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조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사상사대계」발간사업의 진행을 맡았던 정해창(정문연 철학·종교연구실장) 교수는 "사상사대계는 역량있는 한 사람에 의해 집필되는 것이 가장 체계적으로 이상적일 수 있으나,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 한국사상사의 맥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자와 연구자들이 부단히 노력했다"고 밝히면서 "이 작업이 시금석이 되어 한국학이 심화 발전되었으면 한다"고 완간소감을 말했다.

—정혜옥 기자